

“너희의 생명이니” 신명기 32:43-52 (10월 16일 본문)

* **온 세대 목장의 목적:** 온 세대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 온세대 선교적 목장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신앙과 삶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영적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온세대가 함께 이루어 갑니다.

* **교회 소식:** · 11월 20일 오후 2시에 있을 2026 목장 찬양 축제를 준비합니다. (자유곡 1곡)

· 10/18 (주일): 선교주일 · 10/23 (금): 풍찬열기 기도회 · 10/31 (토): 홀리원 가족 축제

* **목장 리더 상담:** 10/31(토) 7am~9am, 11/7(토) 7am~9am (목장 리더로 섬긴 목원 중에서 대표자)

찬 송	새 204 / 통 379 (주의 말씀 듣고서)
기 도	오늘: 온세대 11 사무엘 목장 => 다음주: 온세대 12 요한계시록 목장
성경본문	신명기 32:43-52 (10월 16일 본문)

<말씀 선포> (신 32:47)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핵심 주제> "참된 거듭남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예수님 거하시는 삶입니다."

[마음 열기]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나 암송하고 있는 성경구절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 이해하기]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이자 장수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되, 모리바의 일로 인해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누기]

① 속죄로 마치시는 하나님 (43 절)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오랜 반역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증언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땅과 백성을 위한 '속죄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죄를 덮으시고 끝내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나는 책망보다 회복의 은혜를 더디 믿진 않습니까?

* 영적 리더십은 공동체의 죄를 다룰 때 단호해야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속죄와 회복'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정결케 하여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마음에 두고 지키라 (44-47 절)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두고 다음 세대에 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결코 빈말(헛된 일)이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킵니까? 단순히 뇌가 참고할 지식 정도로만 여겨 실천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 신앙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전환과 전수를 뜻합니다.

* 조부모, 부모와 리더가 먼저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그 말씀이 다음 세대의 삶과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③ 바라보되 들어가지 못하리라 (48-52 절)

모세조차 트리바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하지 못한 일로 인해 가나안 입성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거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익숙한 신앙과 오래된 섬김을 핑계로 자신을 느슨하게 두고 예외를 바라진 않습니까?

* 평생을 바친 사역의 결승점 앞에서 멈춰야 하는 모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 이 땅의 가나안을 넘어 천국의 약속의 땅으로! 내 세대의 소원을 넘어 다음세대의 비전으로!

④ 우리 목장과 목원들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구속사로 해석하기] 모세는 평생 말씀을 전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에 직접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할 '구원 그 자체'는 아님을 철저히 보여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게 되는데, 이는 훗날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참된 기업(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완벽하게 내다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 오랜 헌신이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말씀의 정죄를 품고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참된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온세대 목장의 목원들과 가정들이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지 않고, 함께 듣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영육간에 어려운 가정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목원과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중보로 기도합니다.

[기도 나눔] 개인 기도제목 / 목장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 초대하기 (목장보고서/올리브 블레싱)